

선종불교 역사에 큰 발자취 남긴 평민거사

중국불교의 거사들 <8>

남조(南朝)의 거사불교②-부대사(傅大士)

양무제(梁武帝) 집권시기에 수많은 명승과 거사들이 활약했다. 그 가운데 부대사는 후대에 달마(達摩) 선사·지공(誌公)과 함께 양대(梁代) '삼대사(三大士)'로 칭해질 정도로 유명하다. 이는 '양무제와 달마 선사의 문답'을 인정한다는 전제로부터 나온 것이라 명확한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부대사(497~569)는 남조를 대표하는 거사로서 후대 중국 불교, 특히 선종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부대사의 본명은 부흥(傅翕)으로 호는 선혜(善慧)이다. <속고승전>에서는 본명을 부흥(傅弘)이라 칭했다. 선혜(善慧)대사, 어행(魚行)대사, 쌍림(雙林)대사, 동양(東陽)대사로도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대사라 불린다. 거사는 동양군(東陽郡) 오상현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 출생했다. 거사가 16세 되던 해 유평광(留妙光)과 결혼해 보견(普建), 보성(普成) 두 아들을 낳았다.

거사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이 없었으며, 특별히 애착을 갖는 일도 없이 항상 고기를 잡으러 다녔다.

배출했다. 거사가 송산 아래 머물자 산의 정상에는 둥근 황운(黃雲)이 뿔뿔하고, 사람들은 송산을 '운황산(雲黃山)'으로 바꿔 불렀다. 거사가 부인과 함께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 수행하기를 7년째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선정에서 석가·금숙(金粟)·정광(定光) 세 분 여래가 거사의 몸 위에 방광하는 모습에 거사는 자신이 이미 수능엄(首楞嚴)의 경경(定境)을 얻었음을 알았다.

이후 거사는 스스로 '쌍림수 아래 당대 해탈한 선혜대사(善慧大士)'라는 호를 짓고 법을 설했다. 거사의 설법에 사부대중이 모여들자 군수가 요언(妖言)으로 민중을 미혹시킨다고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뒀다. 거사가 옥중에서 몇 십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거나 먹지 않으니, 사람들이 더욱 거사를 받들게 됐고, 결국 군수는 거사를 방면했다. 법회는 더욱 확대됐고 사람들은 그를 '대사(大士)'로 받들었다.

이때가 거사가 31세 되던 양나라 대통(大通) 원년(527)이다. 그 해 거사가 있던 곳에는 커다란 흥년이



그림 · 김홍인

양무제와 담론 통해 '쉬지만 멸하지 않음' 도리 설파

'부대사보지금강경찬' 집필...금강경 이해 단서 제공

그런데 거사는 고기를 잡고난 후 담아놓은 통을 물에 담그면서 "갑고기는 가고, 남아있을 고기는 남으라"고 말해 그것을 인과(因)의 소치로 돌리니, 사람들이 모두 여러식다고 비웃었다. 거사가 24세 때, 송산(嵩山)에서 온 서역승려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송산타(嵩山陀)'라고 칭했다. 어느 날 송산타가 거사를 찾아와 "나와 너는 비바시불(毘婆尸佛) 앞에서 함께 사원했다. 현재 도솔궁에는 나와 너의 의발이 여전히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언제 돌아갈 것인가"라고 물었다. 망연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사에게 송산타는 여러 가지 교의를 가르치며 자신의 머리 위로 둥근 광채를 띄우는 등 상서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제서야 거사는 속세의 인연을 돈오했다. 거사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대장간 화덕에는 순수한 철이 많고, 좋은 의사에게는 환자가 많습니니다. 중생을 제도함이 급한 일이거늘, 어찌 도솔궁의 즐거움을 생각하겠습니까?"라고 말하니, 송산타는 송산(松山) 아래 쌍림수(雙林樹)에서 수도하라고 일했다. 거사는 바로 그곳에 암자를 짓고 머물렀다. 송산타가 거사에게 일러준 자리는 후에 쌍림사가 창건돼 수많은 고승들이

들었다. 거사는 모든 재산을 보시해 구제에 나섰다. 거사의 부인은 막일을 해 구제에 보태던 중 거사에게 "자신을 팔아 중생의 고통을 해소해달라"고 청했다. 거사는 부인을 5만전에 팔아 그 돈으로 굶주림을 건지는 대법회를 열었고, 이에 감동한 인근의 수많은 부호들이 재산을 회사했다. 이 사실을 안 부인을 사갔던 사람은 부인을 돌려보냈다.

이때부터 거사는 미륵불의 화신으로 알려졌다. 천태산(天台山) 해집(懸集) 스님이 거사에게 법을 물으러 와서 며칠 동안 잠못하다 크게 깨치고는 거사의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 당시 해집 스님은 37세로 거사보다 6세가 많았다. 이후 해집 스님은 거사의 문하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거사의 명성이 커지자 운황산 쌍림에 귀의하는 제자들도 늘어났다. 그 당시 양무제는 수많은 명승들을 모셔 법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거사는 전혀 초청받지 못했다. 이에 그의 문도 100여명은 현령에게 부대사를 양무제에게 추천해 줄 것을 권했지만, 현령은 그들을 모두 내쫓았다.

대통 6년(534) 정월, 인연의 성숙함을 알고 부대사는 양무제에게 '치국삼책(治國三策)'의 내용을 읊었다.

같은 해 12월 양무제는 거사를 수도로 초빙했다. 이로부터 거사는 대통(大同) 5년(539), 6년(540) 3차례 걸쳐 양무제의 초빙을 받아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동안 수도에 머무르며 양무제와 만났다.

거사가 양무제를 처음 만날 때였다. 양무제는 거사에게 예를 표하지 못하게 하고 스승을 불렀다. 거사는 "종래 따른 바도 없고, 스승이라고 할 바도 없다. 받들만한 것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거사를 인정한 양무제는 종일 담론을 벌였다. 이후 거사는 <금강경> 강설을 맡았다. 법회에 오던 거사는 자를 어루만지다가 책상을 내리치고는 내려왔다. 옆에 있던 지공(誌公) 화상이 양무제에게 "이해하셨습니까?"라고 묻자 양무제는 "일지 못했다"라고 답했고, 지

공 화상은 강설이 끝났음을 대중에 알렸다. 이는 <벽암록> 67칙에도 실려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지공 화상(418~514)은 부대사가 18세이던 해에 이미 입적했다. 입적한 지공 화상이 등장하는 것은 '양무제와 달마 대사의 문답'과 같이 역사적 사실로 보기 어렵다. 팽제청이 지은 <거사전>에는 부대사가 직접 양무제에게 묻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시은의 <거사본등록>에는 지공 화상의 이름 대신 '성사(聖師)'로 표기했다. 부대사와 관련된 여러 자료에서 위와 일화가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일화 자체는 사실로 보인다.

거사는 양무제와 3차례 만난 후 실망했다. 거사가 볼 때 양무제의 불교신앙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

음을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양무제와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 거사는 바로 '쉬지만 멸하지 않음'의 도리를 양무제에게 설파했다. 양무제에게 불교의 진리에 접근하려면 형식에 치우친 불사(佛事)가 아닌 참다운 마음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은근한 충고를 하는 것이었다. 양무제는 거사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대통 6년(540), 마지막으로 양무제를 대면했을 때, 거사는 양무제에게 자신이 있는 운황산 쌍림을 사할로 조성해도 좋은가를 물었다. 양무제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 '쌍림사'를 창건했다. 이렇게 창건한 쌍림사는 거사의 원력으로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됐다. 수대(隋代)에는 '천하에서 세 번째, 절강에서 첫째' 가는 사찰로 불렸고, 송대(宋代)에는 황제가 정한 '오산십찰(五山十刹)' 가운데 8번째로 손꼽혔다.

거사는 쌍림사 창건 후 운황산에 은거했다. 그러나 태칭(太清) 2년(548), 후경(侯景)의 난이 발생해 민생은 다시 도탄에 빠지게 됐다. 그에 따라 거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중생들의 괴로움을 해결코자 했다. 유한했던 재산이 안타까웠던 거사는 '법시(法施)'로서 인간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자 '소신공양(燒身供養)'을 결정했다. 먼저 '불식(不食)'으로 제를 올리며, 소신공양을 준비했다. 이 사실이 안 문도들이 모두 몰려와 울면서 서로 대신 소신하겠다고 청하며 거사에게 세간에 더 머물기를 간청했다. 어쩔 수 없이 거사는 문도들의 청에 따라 세간에 머물기로 했다. 입적하기 전까지 거사는 청빈하게 살며 모든 재물을 중생 구제에 돌리도록 했다.

대건(大建) 원년(569)에 이르러 거사는 세상과의 인연이 다되었음을 알고 <환원시(還源詩)> 12장을 지었다. 그해 4월 24일 보견·보성 두 아들에게 "신중하게 참회하고 수행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73세로 입적했다. 거사는 입적 전 제자들에게 화장해 유골의 받은 산 정상에 탑에 안치하고, 받은 집안의 탑에 두도록 분부했다. 태건(太建) 5년 진(陳)의 선제(宣帝)는 서릉(徐陵)에게 거사의 비문을 짓도록 했는데, 현재 비는 존재하지 않지만 다행히 그 비문은 전래한다.

거사는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그 대부분은 4권으로 이루어진 <선혜대사어록>(만속장경 120권 수록)에 담겨 있다. 그 가운데 <행로난> 20편과 <심광량>은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고 있다. 이외 <송사(宋史)> 권205 <여문>기에 <부대사보지금강경찬> 1권 등은 <금강경> 이해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거사가 중국불교에 미친 영향은 이루 다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심원하다. 천태·화엄 등 각 파뿐 아니라 선종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선종에 있어서서 후대에 등장하는 대부문의 선사 어록에 부대사 명칭과 일화들을 게재할 정도로 그 영향이 크다. 또한 양무제와는 달리 평민출신 거사인 부대사의 행적은 후대 전체적인 중국거사불교에 가장 전형적인 귀감이다.

■ 김진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카필라 신발



▲성불화 남여공용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국가이름

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뉴빅" 사용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고, 스니커는 승복색상에 맞게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성하고 있다. 또한 "카필라"를 신고 만행할 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독특하다. 성불화"카필라"는 남녀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사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액 88,000원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니커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에서 스니커와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 II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 I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카필라"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한 인도(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 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

추운 겨울, 더운 여름을 거뜰히 이겨냅니다!

산양삼 직판 특별할인공급

지리산 산양삼 먹어보면 느낌이 확 옵니다.

산양삼은 노루나 멧돼지 새 등이 산삼씨앗을 먹고 다른곳에 배설하여 씩이나 자라는 것이고 산양삼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 산삼의 종자를 뿌려놓고 자연 상태에서 10~20년을 기다린후 채취한다. 인삼은 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2~3년만 지나도 손가락 굵기로 크지만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위치한경남 함양군에 있는 지리산산양삼은 울창한 수림속에 잔발이 드는 산삼이 자라는 토양과 같은 조건에서 자라므로 10년이 지나도 손가락 굵기정도밖에 자라지 않으며 토양속 무기질을 영양으로 흡수하기 위해 잔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그동안 삼이 좋으면 알면서 높은 가격 때문에 섣뜻 구입하지 못한 분들께 지리산 산양삼농조합에서 직



※실경, 생산지, 원산지가 표시된 산양삼 증명서가 동봉됩니다.

※시중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겨울철이므로 통신으로 직판합니다.

■8년산 3뿌리 -900,000원- 200,000원
 ■8년산 6뿌리 -600,000원- 300,000원
 ■12년산 1뿌리 -200,000원- 150,000원

문의 1566-3378
 지리산산양삼농조합
 농장 (055) 963-3375
 농협 1285-02-028081 임지영

옷 옷가네 토종참옷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옷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옷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옷이 좋은것은 알지만 옷값이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옷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 성기숙 박사와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내용량 : 1박스(80ml x 60포) 2개월분 •1병(1.5L)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창은 지금 - 옷 안타는 참옷 최초 개발
- KBS 고창의 아침 - 참옷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성고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옷 날려주는 참옷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옷 식물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옷 안타는 참옷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옷 부작용 걱정만,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옷,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참옷만 먹어 되는 옷 건강법이란
- ▶2006.8 20 KBS 삼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옷 입힌
- ▶2006.10.31 KBS 무한지대극 - 참옷

구입엔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옷가네 참옷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